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평창올림픽 그리고 진부역

김 도 연
소설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열린다. 올림픽 유치에 두 번 고배를 마시면서 어렵게 유치한 평창은 여러 방면에서 요동쳤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은 올림픽 경기장 가까운 곳에 땅을 샀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고 한동안 활동을 접기도 했다.

땅 투기 비슷하게 땅을 구입한 이가 어디 그 사람뿐이겠는가. 경기장 근처 알짜배기 땅은 이미 외지인들의 소유가 된 지 오래되었다. 비싼 가격으로 땅을 판 사람들이야 행복하겠지만 거기에서 제외된 대다수의 지역민들까지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덩달아 치솟은 땅값 때문에 새 농지를 구입하거나 이사 갈 집터를 장만하는 것도 쉽지 않게 돼버렸다.

이래저래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까닭은 대관령이 바로 나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고향 풍경과 고향 사람들이 올림픽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따스했던 정을 잃고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평창은 지금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길이다. 어린 시절 마을에는 일제 때 개통한 신작로가 유일하게 큰 길이었다. 차가 지나가면 흙먼지 날리고 자갈이 튀던 그 길옆에 피어나던 코스모스의 벌을 잡으며 우리는 학교를 다녔다.

눈이 1m씩 내리던 겨울이면 인근 스키장에서 나온 스노우카가 눈길을 쌩쌩 달렸다. 자동차 꽁무니에 연결한 밧줄을 잡은 스키어들이 대관령에서 줄줄이 내려왔다. 스키어들을 흉내 내다 지치면 우리들은 나무스키를 타고 눈 덮인 비탈 밭으로 올라가 내리달리다가 밭둑에서 멋지게 점프를 했다.

신작로는 70년대에 포장되고 뒤이어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고속도로는 마치 높은 성벽처럼 보여 산골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우리들은 올라가지 말라는 고속도로로 올라가 지나가는 차들을 구경하고 잠시 멈춘 관광버스에서 내린 도회지 사람들을 신기한 듯 훔쳐보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소고기조림을 주며 너희들을 감자와 강냉이밖에 못 먹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고속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더니 결국 마을을 반으로 갈라버렸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또한 살 곳을 찾아 뿔뿔이 이사를 가야만 했다.

국도와 고속도로에 이어 지금 평창엔 또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철길이다. 동계올림픽의 가공할 위력이다. 지금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을의 풍경이 또다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진부역(珍富驛)에서부터는 험준한 대관령을 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뚫리고 있는 중이다.

고향에서 잠을 자는 날이면 땅 밑 저 아래에서 암반을 발파하는 공사 때문에 한동안 지진이 난 것처럼 집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도 감수했다. 마을에 처음으로 기차가 들어온다는 설렘으로 불안을 잠재워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내가 올림픽을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을 그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 올림픽의 이념은 무엇인가. 올림픽은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가. 우리는 올림픽을 어떻게 보는가. 혹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보다 빨리 서울에 가기 위해, 보다 빨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올림픽의 경기종목도 제대로 모르면서 올림픽 유치에 열광한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 집 땅값도 어마어마하게 오를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깃발을 흔들었던 것은 아닐까.

이 거대한 모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체념 아래 수백 년을 한 자리에서 살아온 나무들이 베어지는 것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진부역(일명 올림픽역)은 동계올림픽 주경기장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역이다. 역의 이름을 놓고 말들이 많다. 눈의 고장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인간이 아닌 천혜의 자연조건으로부터 얻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그 자연을 파괴한 뒤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

진부역은 올림픽 개최 이후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수백 년 자라온 나무들이 베어진 자리는 어떻게 될까. 고향의 잠자리는 낯설지 않을까.

의료칼럼

목의 통증이 심하다면

김 수 한
새우리병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목과 어깨 부위 통증으로 진료한 사람은 5년 전보다 30% 정도 늘어나 2012년에는 280여만 명에 이른다. 또, 목디스크 환자는 2006년 53만4279명에서 2010년 69만84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척추관은 뇌에서 팔, 몸통, 다리로 가는 신경다발인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다. 척추뼈는 몸체(추체)와 여러 개의 돌기로 이루어진 고리(추궁, 후궁)로 되어 있는데, 이 몸체와 고리 사이의 둥근 공간이 이어져서 형성된 척추관내에 중추신경인 척수신경이 들어있다. 각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척수신경에서 가지를 치듯 갈라져 나오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를 '추간공'이라고 한다. 성인에서 퇴행성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목 디스크나 목 협착증이 발생하면 추간공이나 척추관 내에 있는 신경이 압박돼 통증이나 감각 이상 또는 손과 발의 근력 저하가 발생한다.

목과 관련된 증상은 크게 목 디스크와 목 협착증으로 볼 수 있다. 목 협착증은 노화에 의한 경우가 많아 주로 50, 6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쉬거나 목을 보호대로 고정하거나 목을 굴곡하면 통증이 다소 완화되고, 과도한 긴장이나 목을 뒤로 젖히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거나 촉진될 수 있다. 통증은 목, 어깨, 양쪽 어깻죽지 뼈(견갑골) 사이에 나타나고, 압박되고 있는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 따라 손가락, 팔에 저린 느낌이나 전기가 통하는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 감각 저하가 발생해 팔이나 손이 남의 살처럼 감각이 둔해져서 부자연스러운 손놀림이 나타나고 협착증이 더 진행되면 척수가 압박될 뿐 아니라 척수의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한 신경허혈이 초래된다. 몸통이나 다리에 분포하는 신경이 손상되면 몸통이나 다리의 감각이 둔해져 차거나 뜨거운 느낌이 둔해지거나 꼬집어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으며 눈을 감으면 자신의 발가락, 발, 다리가 구부려져 있는지 펴고 있는지 모르는 수도 있고 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비틀거리는 걸음을 하고 잘 넘어진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등으로 오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5, 60대 이후에 이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면 목 협착증을 먼저 염두에 두고 검사를 해야 한다.

목 협착증과 목 디스크의 증상은 아주 유사하지만 목 디스크는 목 협착증에 비해 50대 이하의 성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경부통과 함께 한쪽 팔에 국한돼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엄지, 중지, 약지 손가락을 포함해서 2~3개의 손가락에 국한돼 저리는 통증이 있으며 협착증에 비해 통증이 더 심한 것이 특징이다. (목 협착증의 경우에는 흔히 양팔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목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니면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 중 대표적으로 감별을 요하는 질환으로는 어깨부위의 통증을 일으키는 어깨 관절염, 오십견, 팔꿈치 통증이 생기는 테니스엘보우, 손이 아프고 저린 팔목터널증후군이 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내분비 이상 등의 전신질환에 의한 신경자체의 변성 또는 신경이나 근육 자체의 질환 등이 있다. 증상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선 검사(X-ray),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근전도(EMG) 등의 방법이 주로 쓰인다. 이 외 체성신경전달검사, 유발전위검사, 체열촬영 등의 다양한 검사방법이 있으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진단방법에 불과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MRI가 필요하다.

기 고

'광주'를 버려야 '디자인센터'가 산다

정 기 석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 교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제주디자인센터를 건립한다고 한다. 제주디자인센터는 국책사업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맡아 추진하며 국비 270억원을 투입해 2017년 완공 예정이다. 제주의 관광·의료·전통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디자인 융합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는 서비스 디자인융합센터다. 전남도에서도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슬로건을 앞세워 활력, 온정, 매력이 조합된 전남의 키워드를 표현하고 전남의 친환경 자연에서 성장한 깨끗한 농축산물을 지역 명품브랜드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디자인 정책을 펼치고자 지역 맞춤형 전남디자인센터(연구소) 설립을 검토 중이다. 최근 전북발전연구원도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건립'을 공식 제안했다.

광주디자인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주디자인센터, 전북디자인센터, 전남디자인센터의 건립에 마냥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디자인센터 설립 제안 배경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호남권에는 지난 2005년 광주에 건립된 광주디자인센터가 호남 전체의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디자인센터는 대부분 광주·전남의 디자인업체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즉, 광주디자인센터가 호남 전체의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을 주관해야 함에도 광주에 치우쳐 있기에 전북의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디자인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북발전연구원의 논리다.

지난 2005년 당시, 광주디자인센터는 광주만의 디자인센터가 아닌, 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시·제주도의 디자인 통합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되었다. 그러나 설립 9주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본래 사업 취지와 달리 광주만의 디자인센터로 머물고 있다.

단적인 예로, 5년 전 광주디자인센터와 전남도가 MOU를 체결했음에도 그 이후 세부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인 협약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디자인센터가 아닌 본연의 취지대로 호남, 제주를 아우르는 '디자인 컨트롤타워(통제탑)'로서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광주디자인센터의 명칭부터 변경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광주디자인센터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북과 전남, 그리고 제주도는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광주만의 디자인센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광주디자인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광주'를 버려야 한다. '광주'라는 지역 명칭을 고집하다가 서남부 호남권을 대표하는 디자인센터로서의 큰 위상을 잃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하면 '광주'라는 도시 명칭을 고집하는 것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적인 통 큰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전북과 전남, 제주에 따로 디자인센터를 건립한다면 광주디자인센터는 호남지역 '디자인컨트롤타워'라는 명분이 사라지고 센터 운영은 축소될 것이다.

광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전당' 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도시로 꽃피울 광주의 이미지에 걸맞게 지역의 벽을 뛰어 넘어 광주디자인센터가 '아시아디자인센터' 처럼 국제적인 명칭으로 변경한다면 세계를 향한 디자인센터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 '문화·디자인 공동발전 협력모델'을 통해 공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호남 서남부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탄력적인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디자인 의존도가 높은 산업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세계를 향한 새로운 가치창조의 꽃이 광주에서 새롭게 피어날 것이다.

'바바리맨' 재발 막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최근 공연음란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연음란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바바리맨'들의 성적 노출증과 같은 성도착증 증세는 더 큰 성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바리맨'을 만났을 땐 가장 먼저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그들이 범행을 하는 장소는 자신의 주거지 또는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만일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경로를 이용하여 도주를 할 수 있어 그러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바리맨'들이 자신의 주거지 또는 주 활동지에서 범행을 한다는 것은 즉 그 지역 사람들이 더 큰 성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높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바리맨'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는 '바바리맨'이 도주하는 경로를 정확히 확인하고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꼭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검거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공연음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더 큰 성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크고, 계속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불안과 불쾌감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척결해야 할 문제다. 더 나아가 공연음란 행위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장애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그들이 심리치료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사회적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등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양림로(학동)

社 說

일선 시·군 난개발에 혈세까지 낭비하다니

전남지역 각 시·군이 확장 일변도의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구도심 쇠퇴와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체장의 공약이나 지역개발 등을 명분으로 구도심을 방치하고 외곽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주거·상업·준주거지역 1인당 평균 면적은 각각 119.46㎡, 14.98㎡, 6.23㎡로 전국 평균의 2~3배에 이르고 있다. 전국 평균치는 주거지역 48.17㎡, 상업 5.97㎡, 준주거지역은 2.69㎡에 불과하다. 난개발이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도시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양과 여수시, 해남군은 지난 2008년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 2015년 인구 증가치를 과다 책정해 도심 외곽을 개발해 왔다. 하지만 주택·상업·편의시설 등은 이미 과부화가 걸린 상태다.

무안, 장성, 진도군은 2011년 읍내 소재지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미사용 토지가 각각 36.7ha, 91.5ha, 23.2ha에 달한 데도 녹지, 임야, 농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에 나서 구도심 쇠락과 외곽의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비용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단체장의 섣부른 판단도 문제지만 제어장치인 전남도의 도시계획 심의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막연한 인구 증가치를 내세운 도시 확장 계획인데도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심의와 허가를 해준 탓이다. 부작용이 심화되자 전남도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례에 비추어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이제 더 이상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화는 안 된다. 황폐화된 애물단지는 결과적으로 지역민에게 피해만 안길 뿐이다.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따뜻한 관심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소외계층 겨우살이가 걱정이다. 혼자 사는 가구나 정신·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다. 복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광주시 북구에서 쓰레기 더미에 쌓여 혼자 생활해 온 정신장애 3급이 모(58)씨의 사연은 허술한 복지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그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찾은 공무원들은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한다. 아파트 거실과 방은 사람 키보다 쓰레기 더미가 더 높았고, 악취와 벌레로 과연 사람 사는 공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한 달여 전에도 북구의 또 다른 임대 아파트에 사는 김 모(71)씨가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 채 기아로 사망 직전에 이른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발견해 겨우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다. 김씨 역시 홀로 사는 처지였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거동이 어려운 김씨가 며칠간 보이지 않자 부랴부랴 그의 집을 찾아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을 비롯해서 소외계층이 급박한 상태에 내몰리는 것은 이웃의 무관심과 촘촘하지 못한 복지 체계 때문일 것이다. 온갖 잡동사니를 집안에 모아 둔 이씨에게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더라면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한정된 예산과 인력 때문에 완벽한 복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10월 말까지 광주 지역에서 급박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 가정 관리 대상이 무려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 가중과 사회적 시스템 미흡으로 긴급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소외계층의 겨울은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다. 지자체 해당 부서는 물론 시민들 역시 항상 내 주변의 불우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콜비츠와 루쉰

불타는 창문을 지나 일곱 개의 거울이 달린 문, 그 끝없는 통로를 빠져나왔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낙엽 밟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시 걷는다. 단풍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5분 정도 걷다 보면 마주하는 곳. 광주시립미술관이다. 그곳에서 콜비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케테 콜비츠(1867~1945). 나치 치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 불의(不義)의 시대에 저항한 여성 판화가. 1차 세계대전에서 아들을 잃고 2차 대전에서 손자를 잃은 그녀는 그런 까닭에 어머니와 할머니의 심정으로 반전(反戰)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걸작들을 남겼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을 담은 '폭동' '배고픔' '희생자들' '살아남은 자들' 등등. 그녀의 많은 판화와 드로잉 작품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임에 틀림없다.

20세기 각국의 민중미술이 한 자리에 모인 전시장에는 또한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작품들이 있다.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쉰(魯迅, 1881~1936)이 1930년대 일제에 항거해 벌인 목판화 운동의 대표 작품들이다.

'광인일기' '아Q정전' 등을 쓴 루쉰은 미술에도 조예가 깊어 중국에서 콜비츠 작품집을 내고 평론을 쓰기도 했다. 중국 판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일본 강사를 불러들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화 강습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판화라고 하는 갈래가 가장 폭넓은 민중예술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콜비츠에서 비롯됐지만 루쉰이 그 전통을 완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콜비츠는 한국 민중미술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엊그제 새로 광주시립미술관의 수장이 된 조진호(62) 관장 역시 80년대 판화 작업으로 화단에 모습을 드러냈었다.

1983년이었던가. 오월시판화집('가슴마다 꽃으로 피어 있어라')을 처음 대했을 때의 강렬한 인상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당시 나종영·곽재구·박몽구 등 오월시동인(五月詩同人)들의 시(詩)를 판화로 표현한 이가 바로 조 관장과 또 다른 화가였다. 루쉰의 제자들 그리고 콜비츠의 흑백 판화 작품들을 보면서 참으로 암울했던 80년대의 회상에 젖는다. /이홍재 논설고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